

# 마셜군도 공화국과 결핵관리

류 우 진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역학부장

**세계** 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본부의 결핵팀(닥터 '블랑'과 닥터 '안동일')으로부터, 결핵 분야의 WHO 자문관으로서 (1) 마셜군도 공화국의 결핵문제 크기의 파악, (2) 결핵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 및 해결 방안, 그리고 (3) 결핵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등의 임무를 수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1997년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약 3주간 마셜군도(群島) 공화국(이하 마셜군도)의 수도인 '마주로(Majuro)'섬과 그 외 '이바이(Ebeye)'섬 두 군도를 방문하게 되었다. '안동일' 선생님은 닥터 '블랑'을 비롯하여 그 누구도 마셜군도에 가 본 적이 없어 그 나라의 결핵 실태와 결핵 관리 현황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아마도 미국의 결핵 관리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과 이 기회에 마셜군도 공화국의 실정에 알맞은 '결핵 관리 지침서'의 개요만이라도 만들어 주기를 원하였다.

마셜군도로 가기 전에, 1997년 3월 19일, WHO 서태평양 지역본부(필리핀, 마닐라)에 들러, 임무에 대한 브리핑과



WHO 자문관의 리포트 작성 요령, 모기 약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구급약 등을 받았다. 이외에 응급 상황 발생시 24시간 가능한 연락 번호, 그리고 사고가 생겼거나 죽었을 경우 연락할 가까운 가족의 연락처 등을 적어주는 절차가 있었는데 이때는 나의 임무 수행에 행운이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로 생겼다.

다음날 아침 '괌(Guam)'으로 출발하기 전에 사무총장이신 '한상태' 박사님의 비서로부터 긴급히 연락이 와 한 박사님을 뵈게 되었다. 한 박사님이 가능

한 WHO 자문관들을 만나시길 원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원래 스케줄은 전날에 약속이 잡혀 있었었다. 닥터 블랑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 인사를 드렸는데, 한 박사님은 인사말 등은 한국말을 쓰시다가 업무에 관련해서는 영어를 사용하시면서 나에게도 영어로 대화하기를 요구하셨는데 나의 영어 능력을 시험하는 느낌이 들었다.

마살군도의 결핵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닥터 블랑을 비롯하여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 나를 먼저 마살군도를 포함하여 남태평양의 몇몇 나라들을 담당하고 있는 '피지(Fiji)'의 WHO 사무소로 보내 조금이라도 사전 정보를 얻게 한 후에 마살군도로 보내야 했을

것이라고 닥터 블랑을 책망하실 때 나의 임무 수행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한 박사님은 우리 나라 식으로 조금하게 일을 하지 말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나라 식으로 한 템포 느리게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충고를 덧붙이기도 하셨다. 떠날 때, 여러 관계자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다녀오라' 또는 '행운을 빈다' 등의 인사말을 할 때는 마치 전쟁터로 떠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 비장한 각오가 생겼다.

마살군도로 가는 길은 현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괌에서 미국 항공기인 Continental Micronesia Air Line을 이용하는 것으로 월, 수, 금요일에는 괌에서 하와이로 향하고, 화, 목, 토요일



▲ Majuro 병원 앞에서 병원 직원들과 함께 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가 필자.

에는 반대로 하와이에서 고프로 향하고 있다. 고프와 하와이 또한 중간 지착지 중의 하나인 콰잘린(Kwajalein) 섬이 미군 기지여서인지 대부분의 승객은 미국인들이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피지에서 Air Marshall을 이용하는 것인데, 자국인들은 이 항공기가 출발 시간을 지킨 적이 없다며 'Air Mad'(미친 비행기)로 별칭하며 비행기 샅도 싸지 않으니 가능한 이용하지 말라고 충고를 하였다. 이외에 금년 안에 일본의 'ANA'항공이 일본인 관광객들을 위하여 일본과 마셜군도의 직행 노선을 개설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현지에서 들었으며,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에서 가기는 편해질 것이다.

4월 20일 고프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 '콘티넨탈 마이크로네시아' 비행기를 타고 마셜군도로 향했다. 도중에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공화국(Federal State of Micronesia)'의 섬들(축, 포나페이, 코르세이) 그리고 마셜군도의 '콰잘린' 섬을 거쳐서 최종 목적지인 '마주로' 섬으로 가게 된다.

마치 바다 위에서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섬 하나 하나를 폴짝 폴짝 건너뛰는 식으로 다섯 차례의 이륙과 착륙의 스티를 맞본 후에, 마침내 현지 시간으로 오후 7시경에 '마주로' 공항에 도착하였다.

공항에 도착하였으나 날씨는 무덥고 마중을 나온 사람은 없었다. 마닐라 WHO 지역본부에서 팩스를 보냈는데도 회신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터여서, 내가 도대체 오는 것을 알고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다. 어쨌든 돈은 있

으니까 아무 호텔이나 가서 묵고 날이 밝으면 WHO로 연락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피지인이 다가오더니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왔다. 그는 호텔 매니저였는데, 일본 사람을 마중나왔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였다. 어쨌든 그날 도착한 동양인은 나 혼자였기에 일본인 대신에 내가 묵기로 서로 합의하고 호텔로 향했다. 호텔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있는 중에, '닥터 지바고'에서 주연한 영화배우 오마 샨리프와 피부 색깔만 빼곤 아주 비슷하게 생기고 우수에 찬, 분위기가 딱 닮은 현지인이 허겁지겁 나타나 공항으로 마중 나가지 못하여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였다.

그는 보사부의 결핵 관리 담당자(TB Coordinator)였고, 이름은 닥터 지바고가 아닌 '메덱스(Medex) 조비'였다. 처음에는 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후에 차량을 구하기가 어려워 공항으로 마중 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는 나의 성과 이름을 혼동하여 잘못 알고 있었고 그 일본인은 바로 나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WHO에서 나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었을 텐데도, 워낙 일본인과 중국인들이 전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고 국가도 더 알려져 있어서인지, 마셜공화국 보사부는 동양인이니까 일본 의사일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그날 저녁 '조비'와 어두컴컴한 술집에 앉아 현지 맥주를 마시면서 왜 그가 닥터 지바고와 비슷하게 보이나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그와 함께 나의 스

케줄을 짜기 시작했다.

마셜공화국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지리적으로는 북위 4°에서 14°, 동경 160°에서 173°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와이와 오스트레리아를 잇는 선의 중간쯤에 자리잡고 있다. 이 나라는 남태평양에 약 1,225개의 자그마한 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독립되어 있는 섬은 5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29개의 환상산호(環狀珊瑚)섬군(群)이다. 환상산호섬군(이하 환초: 環礁=Atooll)은 두 개의 거의 평행한 남북 방향의 길쭉한 띠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 하늘에서 보면 마치 가운데가 비어있는 도넛과 비슷하다. 마셜군도 섬들의 육지 총면적은 약 70평방 마일에 불과하나 이 섬들은 약 750,000 평방 마일(남한 면적의 약 9 배)나 되는 바다에 걸쳐 흩어져 있다. 기후는 평균 섭씨 27도이며, 우기는 4월에서 9월까지이며, 이때 내린 빗물을 모아서 1년동안의 식수 및 기타 용도에 사용하고 있다.

마주로 공항에 착륙할 때, 활주로를 따라서 양 옆으로 움푹 패인 곳에 많은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빗물을 받는 장치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되었다. 인종은 괌(Guam) 원주민과 같은 마이크로네시아 인종이며, 1996년 현재 인구수는 59,246명으로 자그마한 나라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수도인 '마주로(Majuro)'섬(27,408명: 46%)과 '이바이(Ebeye)'섬(12,832명: 22%)에 몰려 살고 있으며 인구 증가는 심각하여 지난 20년동안에 인구가 2배로 늘었으며

인구의 약 50% 정도가 15세 이하이다. 날씨는 무더우면서 섬은 조그맣고 또한 특별한 오락 시설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졌다. 언어는 마셜어가 공식어이지만 영어가 학교에서 교습되어 대부분이 영어를 유창하게 사용하고 있다.

마셜군도의 환초(Atoll) 중에는 원폭 실험과 비키니 수영복 이름의 유래지로 유명한 '비키니(Bikini)' 환초가 있으며,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과 미국의 치열한 격전지로 유명했던 '콰잘린' 환초가 있다. 비키니 환초에서는 1946년부터 1958년 사이에 23회의 원자폭탄 및 수소폭탄 실험이 실행이 되었고, 1954년 3월의 수폭실험에서는 부근을 향해중이던 일본어선 '제5후쿠류마루'가 '죽음의 재'를 뒤집어쓴 사건이 일어나, 이것을 계기로 원폭과 수폭 실험 반대, 나아가서는 전쟁을 반대하는 세계 여론이 환기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비키니 환초 외에도 '에니웨톡(Enewetak) 환초에서도 정확히 43회의 원폭과 수폭 실험을 하였고 이들 섬주민들은 다른 섬으로 쫓겨나야 했다. 현재는 미국 정부가 이들 섬의 방사능 제거를 위하여 오염된 흙의 정화와 그리고 원주민들의 재정착 계획을 위하여 30억불 이상의 돈을 사용하고 있으며, 마셜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매년 7,500만 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까지 10억불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어 마셜정부는 재정적으로 미국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卄

<다음호에 계속>